

고전13:1-13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면서 그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랑’이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 관련된 추상적 개념으로서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궁극적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였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요일 4:8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일 4:19 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사랑의 무조건적 순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사랑의 기원이 있었다거나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만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며 사랑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먼저 남을 사랑해야 마땅함을 가르쳐줍니다. 대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악순환은 지극히 산술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19:19에 의하면 내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고싶지 않으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원리가 순조롭게 됩니다. 사랑은 내려갑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은 내려가기도 하고 흐르기도 합니다.

2)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빛이 의무적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빛으로서 자연스럽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복음을 증거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갠고 한시라도 속히 구속 사업을 완성시켜 천국이 도래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롬1:14 에서 그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에 대하여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빛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갠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